

푸드갈라 존재 양태의 다양성에 관하여 — 중후기 중관 문헌들을 중심으로 — *

정상교

(도교대학 대학원 인도철학-불교학과 박사)

국문요약

초기 불교 이래 무아설은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중요시되었으나 동시에 수행, 행위 주체 및 과보의 향수자등을 어떻게 무아설과 양립 시키는가에 대한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이에 前3C 및 前1C경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 독자부(Vātsīputrīya, 犢子部) 및 정량부(Sāmmitīya, 正量部)로 대표되는 푸드갈라론자(Pudgalavādin)들은 이러한 문제를 ‘오온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非即

* 본 논문은 필자가 2016년 1월 도교대학 대학원 인도 철학과에 제출한 박사 학위 청구 논문 『中觀學派によるブドガラ(人格主体)說批判』 중, 본문 [2.1 蘊と別異のブドガラ說-『般若燈論』を中心に-]를 중심으로 요약, 편집한 내용이다.

非離蘊) 푸드갈라'라는 인격주체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따라서, '비즉비리온'은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관한 매우 특징적인 교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입중론』은 '오온과 동일한 푸드갈라'를 주장한 부파로 정량부를 기록하고 있고, 『반야등론』 및 *Prasannapadā*는 『중론』 제9장에 있어서, 오온보다 선행하는 주체, 즉 오온과 다른 주체를 독자부 및 정량부의 푸드갈라라고 주석하고 있다. 더구나 『반야등론복주』는 『중론』 제12장을 주석함에 있어, 다양한 푸드갈라의 존재양태를 주장한 푸드갈라론자 내부의 부파를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즉비리온' 이외의 푸드갈라의 양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현존하는 푸드갈라설에 관한 문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푸드갈라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비즉비리온'이 푸드갈라의 대표설로 인식되어 온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비판자들의 '오해' 혹은 '왜곡'일 것이라는 소수의 추정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즉비리온 이외의, 문헌상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푸드갈라설을 추적하여 그것이 푸드갈라론자의 교리로서 성립가능한지를 중후기 중관 문헌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주제어: 푸드갈라, 비즉비리온, 『반야등론』, 『반야등론복주』, 『입중론』

I. 문제의 소재

삼법인(三法印)을 구성하는 무아설(無我說)은 인도의 다른 사상들과 불교를 구분 짓는 매우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사상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불교는 윤회 역시 중요한 교설로 받아들였으므로 ‘윤회 및 행위와 수행의 과보를 취하는 주체’ 등을 무아설과 어떻게 양립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매우 어려운 문제를 불교 사상사의 이른 시기부터 남겨 놓았다. 이에 독자부(Vātsīputrīya, 犢子部) 및 정량부(Sāṃmitīya, 正量部)로 대표되는 푸드갈라론자(Pudgalavādin)들¹⁾ 오온과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은, 소위 비즉비리온(非卽非離蘊)의 인격 주체인 ‘푸드갈라(pudgala, 補特伽羅)’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²⁾

1) 푸드갈라론자들의 등장에 관하여서, 정량부로부터 독자부가 분파되었다고 하는 문헌도 있으나 前3C경, 상좌부로부터 독자부가 분열하고, 前1C경 독자부로부터 다시 정량부등 몇 개의 푸드갈라론자의 부파가 분파되었다고 추측된다(並川 2011, 21-77).

현장(玄奘, 6002-664)의 『대당서역기』(646년편찬)에 의하면, 정량부는 당시 인도 소승 불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정도로 푸드갈라론자들은 인도 불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Lamotte 1988, 542-543). 그러나, Williams and Tribe 2000, 125는 Gethin 1998, 223을 인용해 현장이 추정한 모두를 푸드갈라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2) 찬드라키르티(Candrakīrti, 7C경)의 『입중론(주)』 *Madhyamakāvatāra(bhāṣya)*(이하 MA(Bh))는 비즉비리온(非卽非離蘊)으로서의 푸드갈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da ni 'phags 'pa mang pos bkur ba pa dag gis brtags pa'i gang zag rdzas su yod par smra ba bsal ba'i phyir bshad pa |

kha cig de nyid gzhan nyid rtag mi rtag ||

la sogs brjod med gang zag rdzas yod 'dod ||

rnam shes drug gi shes byar de 'dod cing ||

de ni ngar 'dzin gzhir yang 'dod pa yin || MA 6, k.146 Derge, 'a 302b7-303a2.

Skt.: icchanty eke pudgalaṃ dravyasantam

tattvānyatvānīyanityādyavācyam /

ṣaḍvijñānājñeyatā ceṣyate 'sya

so 'haṃkārasyaśrayo hīṣyate ca // MA 6, k.146 (Li 2015, 22)

즉, 이들은 소지(所知, *jñeya*)에 대해 과거법장(過去法藏)·미래법장(未來法藏)·현재법장(現在法藏)·무위법장(無為法藏)·불가설법장(不可說法藏)이라고 하는 독특한 오법장의 체계를 세우고, 인격 주체인 푸드갈라를 오온이나 무위법등과의 동일과 다름이 말하여 질 수 없는(*avācya*) 제오불가설법장(第五不可說法藏)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존재 규정을 통해 푸드갈라론자들은 푸드갈라가 오온과 동일할 경우 발생하는 자아가 복수가 된다는 비판과, 오온과 다를 경우, 푸드갈라가 불교가 비판해온 절대 불변의 아트만과 동일하게 된다는 초기 불교 이래의 아견(我見) 비판을 피하려 하였다. 이처럼 푸드갈라론자들은 무아설을 지키며 행위 및 윤회등의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³⁾ 불

「지금부터는 瞿曇량부가 고찰하는 실재로서 존재하는(*dravyasanta*) 푸드갈라설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명한다.

어떤 이들은 [오온과] 같음과 다름, 항상함과 무상등이 말하여 질 수 없는 실재(*dravya*)인 푸드갈라를 주장한다. 그것은 육식(六識)의 대상으로서 주장되고, 그것은 아집의 의지처(*ahaṃkārasyāśraya*)라고도 주장된다.」

또한, 『논사』 *Kathāvattu*에서도 비즉비리온의 푸드갈라는 소개되어 있고(三友 1978a, 127), 산타락시타(*Śāntarakṣita*, 8C경)의 *Tattvasaṃgraha*(TS)· 및 카말라실라(*Kamalaśīla*, 8C경)의 *Tattvasaṃgrahapañjikā*(TSP) 제7장 제6절 제336계-제349는 다르마키르티의 논리학을 이용해 주로 비즉비리온이라고 하는 푸드갈라의 존재양태의 정의가 내포하는 논리적 모순점에 관하여 비판을 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지도론』 『구사론』 『구사론소』 『성유식론술기』 등에서도 푸드갈라론자의 불가설법장을 전하고 있음을 보면 비즉비리온은 독자부의 매우 특징적인 고려였던 것으로 당대에도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高井 1978, 100-102. Cf. 長澤 1978, 177-180, 武田 1998, 18-19)

- 3) Cháu 1997, 135-136은, 푸드갈라론자 자체의 논서로 전해지고 있는 『삼법도론』(T.25, 19a13-20)과 『삼미저부론』(T.32, 464b5-10, 12-16)등을 인용하면서 푸드갈라론자가 실제적인 푸드갈라를 상정할 때, 그들은 공성(*sūnyatā*), 가설(*prajñapti*), 온(*skandha*), 그리고 아트만 비판등에 관한 초기 경전에 있어서의 자아와 관련한 기본적인 교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삼미저부론』에는, 붓다가 이교도들을 향하여 “‘자아’는 그저 온에 의존해서 가설되어 존재하고,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464b5-10). 더욱이 푸드갈라론자는 붓다의 근본적인 가르침 중 무아설(*anātmavāda*)을 이해하며 아트만에 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붓다

교 내부에서는 푸드갈라를 아트만의 아류로 간주한 비판이 이어졌다.⁴⁾ 이러한 불교 내부의 비판은, 각주2)에서 언급하였듯이, 빠르게는 『논사』(前3C경), 『식신족론』(前2C~1C경)등에서 보이고, 『구사론』 『파아품』(5C경), 『반야등론』 *Prajñāpradīpa*(6C경) 『입중론(주)』(7C경), 그리고 『파아품』의 영향을 받은 TS 및 TSP,⁵⁾ 그리고 후기 중관학파의 『입보리행론세소』 *Bodhicaryāvatārapañjikā* (10C경)등, 시대를 달리 하는 많은 불교 논서들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들 문헌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로 푸드갈라의 독특한 존재 양태로 알려진 ‘비즉비리온으로서의 푸드갈라’이지만, 흥미롭게도 중관 학파 문헌에는 비즉비리온 이외의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관한 짧은 기록도 남겨져 있다. 그러나, 푸드갈라설은 그들을 비판했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전해졌고, 푸드갈라론자 스스로 남긴 내부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비즉비리온 이외의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단지 비판자들의 ‘오해나 왜곡’ 혹은, ‘비즉비리온 이외의 다른 존재 양태도 있었다’ 라는 매

를 무아론자(anātmavādīn)로서 존중하고 있었다고 한다(鄭 2013, 68. n. 24에서 재인용).

4) TS·TSP를 통해 독자부의 푸드갈라설에 대한 8C경 불교 내부의 비판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TS (TSP_B 159, 20-23): tathā hīdam ātmanolakṣaṇam. yo hi śubhāśubhakarmabhedānām kartā, svakṛtakarmaphalasya *ceṣṭasyāniṣṭasya ca bhoktā, yaś ca pūrvaskandhapharityāgād aparaskandhāntaropādānāt saṃsarati, moktā ca, sa ātmeti. etac ca sarvaṃ pudgale ’pīṣṭam iti kevalam nāmnī vivādaḥ (*ceṣṭ<asy>āniṣṭasya ca em. : ceṣṭāniṣṭasya ca TSP_B).

TS·TSP의 기존 교정 텍스트와 근래 입수한 Jesalmer 및 Pattan 사본을 비교 분석한 주요한 이독(異讀)의 일람표는 鄭 2015, 75-78참조. critical edition은 박사 논문에 게재(추후 공개 예정).

“즉, 이것이 아트만의 특징이다. 선(善)·불선(不善)의 여러 행위의 행위자, 그리고 자신이 행한 행위의 바람직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향수자, 이전 [오] 온을 버린 후, 그 뒤의 다른 [오] 온을 취하여 윤회하는 자, 혹은 해탈자, 이것이 아트만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푸드갈라에 인정되므로 [아트만과 푸드갈라는] 명칭에 관해서만 다름이 있을 뿐이다”

또한, 현수 법장(643-712)은 푸드갈라설을 주장한 부파에 대해 ‘자아에 대한 교리를 가진 종파’(我法俱有宗)이라고 칭하고 징관(738-839)은 이들을 ‘불교내부의 외도들’(附佛法中外道)라고 비판하였다(中村 1981, 118).

5) 内藤 1984는 TS(P)와 『파아품』과의 영향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우 간단한 추측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즉비리온 이외의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중후기 중관 문헌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⁶⁾

II. 비즉비리온 이외의 푸드갈라설 고찰

II.1 온즉아(蘊卽我)·심즉아(心卽我)의 푸드갈라설-『입중론』 제6장을 중심으로-

『입중론』 제6장은 인무아(人無我)를 논함에 있어 제120계-제125계까지는 상키야, 바이췌시카, 베단타 학파가 주장하는 ‘오온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아(아트만)설’을 비판한다. 그리고 동장 제126계-제145계에서 정량부가 주장한 ‘온즉아·심즉아’로서의 푸드갈라를 소개한 후 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온과 다른 자아(=푸드갈라⁷⁾)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아견(我見)의 대상은 온에 다름 아니다.

어떤 이들은 아견의 의지처로서 5가지 온 모두를 주장하고

6) 桂 2011, 267는, 특히 대승 불교의 푸드갈라론자에 대한 비판은 유식학파보다 중관학파에서 더욱 빈번히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서 양 학파의 공관(空觀)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들고 있다.

7) pudgala는 일반적으로 人, 士夫, 有情, 我, 補特伽羅 등으로 번역되어 사람, 개인등을 의미한다(梵和 793). 또한 ātman도 ‘我, 己, 自’ 등으로 번역되어 氣息, 生命, 自身, 我, 本質 등을 의미한다(梵和 188). 따라서 양자는 특정의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 개인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티베트어역의 gang zag은 sems can과 동의어로서 pudgala, sattva의 역어이므로(Negi 473), gang zag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르키는 경우와, 푸드갈라론자가 내세운 인격주체로서의 푸드갈라(pudgala)의 역어이다. 그런데 bdag은 aham, ātman의 역어이므로(Negi 2440), gang zag과도 혼용되었다. 그러므로 『입중론』 제6장 제126계에서는 성정량부(聖正量部)가 주장하는 ‘아(我)=푸드갈라’를 bdag(ātman)으로 나타냈지만, 각주 2)의 동장(同章) 제146계에서는 gang zag(pudgala)으로 언급되었다.

어떤 이들은 心(citta)만을 [주장한다](MA 6, k.126)

…(중략) …이 견해는 자파 (불교도) 인 정량부의 [주장]이다.⁸⁾

그러나, 이어지는 제146계에서는 각주)2에서 보았듯이 비즉비리온으로서의 푸드갈라를 소개 한 후 정량부에 대한 비판을 행하고 있다. 즉, 찬드라키르티는 동장(同章)의 전후 계송에서 동일 부파의 교리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의 푸드갈라 개념을 소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먼저 프리스틀리는, 제126계의 ‘온즉야·심즉야’는 정량부 소전(所傳)의 현존 문헌인 『삼미저부론』(**Sāmmitīyanikāyaśāstra*, T.32, 462a-473a)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정량부 내부의 어느 한 지파(支派)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므로, 정량부설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파의 설로 보인다고 추측한다. 그리고 그것을 찬드라키르티가 정량부설로 단순히 오해했다고 지적했다⁹⁾. 또한 듀링거에 의하면, 티베트 논사들인 렌다와(Red mda' ba, 1349-1412), 총카파(Tsong kha pa, 1357-1419), 미꾸도제(Mi bskyod rdo rje, 1507-1554)등은 이 설을 정량부설로, 미팜(Mi pham, 1846-1912)은 정량부의 지파로서 설명

8) phung po las gzhan bdag grub med pa'i phyir ||

bdag lta'i dmigs pa phung po kho na'o ||

kha cig bdag lta'i rten du phung po ni ||

Inga char yang 'dod kha cig sems shig 'dod || MA 6, k.126 (Derge, 'a 295b3)

Skt.: skandhā evālabanam tv ātmadr̥ṣṭeḥ

skandhebhyo 'nyasyātmanah siddhyabhāvāt /

skandhān pañcāpy eka icchanti kecic

cittam tv ekaṃ nīśrayāyātmadr̥ṣṭeḥ // MA 6, k.126 (Li 2015,19)

…(중략) …phyogs 'di ni rang gi sde pa'phags pa mang pos bkur ba pa nams kyi yin no || MABh6 (Derge, 'a295b4-5)

9) Priestley 1999, 51, n.30.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듀링거는, ‘온즉야·심즉야’를 인정한 불교 부파는 없기 때문에 나가르주나(Nāgārjuna, 약2C경)의 추종자들이 불교 내부에서 이단시 된 푸드갈라론자의 교리로서 ‘온즉야·심즉야’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입중론』은 그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량부설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수 학자의 추정만 있을 뿐, 근거 제시는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상술했듯이, 비즉비리온이 푸드갈라 양태에 관한 대표적인 교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교리에 대해서는 그 존재 가능성 자체도 의문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입중론』의 ‘온즉야·심즉야’를 정량부설로 인정할 경우, 비즉비리온과 양립시키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문헌상에 나타난 기록을 도외시 하거나, 오해나 왜곡으로만 봐도 될 문제일까? 따라서 본 연구는 교리적 양립가능성은 후술하기로 하고, 다른 문헌을 통해 비즉비리온 이외의 푸드갈라설의 존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한다.

II.2 『반야등론복주』 *Prajñāpradīpa-ṭīkā* 제12장의 논의에 관하여

『중론』 *Mūlamadhyamakakārikā* 제12장 「관고품」(duḥkha-parikṣā, 觀苦品)은 고(苦)의 발생을 고찰하며, 고의 자작(自作), 타작(他作), 자타작(自他作), 무인(無因)을 부정한다.¹¹⁾ 그 중 자작의 경우, 의존해서(pratītya)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온 상속에도 반한다고 비판하는 등,¹²⁾ 오온과 고의 문제를 논의하

10) Duerlinger 2008, 454.

11) svayaṃ kṛtaṃ parakṛtaṃ dvābhyāṃ kṛtaṃ ahetukam /

duḥkham ity eka icchanti tac ca kāryam na yujyate //MK.12, k.1 (PSP 227, 8-9)

“어떤이들은 고(苦)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 타자로부터 만들어진 것, [자타] 양자로부터 만들어진 것, 원인 없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고)이 결과인 것은 타당하지 않다.”

12) svayaṃ kṛtaṃ yadi bhavet pratītya na tato bhavet/

skandhān imān amī skandhāḥ sambhavanti pratītya hi // MK.12, k.2 (PSP 228, 1-2)

고 있다. 그리고 제4계-제6계에서는 오온과 분리되어 스스로 고를 만드는 인격주체인 푸드갈라를 부정하는 것으로, 고의 작자(人, 푸드갈라)를 부정한다.¹³⁾ 이와 관련하여 아발로키타브라타(Avalokitavrata, 7C경)는 『반야등론 북주』 제12장에서 푸드갈라론자에 속하는 일곱 부파를 열거한 후, 그들의 일부는 ‘오온과 동일한 푸드갈라’를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는 ‘오온과 다른 푸드갈라’를 주장하면서 고의 발생을 설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고는 타자와 자신의 양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견해)에 관하여, 자파(불교도)의 분별설부(Vibhajyavāda, 分別說部), 법호부(法護部) 혹은 법장부(Dharmaguptikā, 法藏部), 홍의부(Tāmrashāṭīya, 紅衣部), 독자부(Vatsīputrīya, 犢子部), 화지부(Mahīśāsaka, 化地部), 법상부(Dharmottarīya, 法上部), 계륜부(Kaukul[ī]aka, or kurukkula, 鷄胤部)¹⁴⁾의 일곱 부파는 푸드갈라론자이다. 그들 중에, 어떤자는 온과 푸드갈라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푸드갈라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고는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어떤자는 온과 푸드갈라는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 자체는 푸드갈라가 아니므로 고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 일곱 부파는 그와 같이, 동일 [과 자작(自作) 및 다름 [과 타작(他作)]이 동의어이므로, 고는 자신과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대, 중관파가 “양자(고의 자작과 타작)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비난하는, 앞의 과실은 우리들(푸드갈라론자)의 주장에는 없다, 라고 한다.¹⁵⁾(밑줄, 필자)

“만약 [고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로 의존해서(pratītya)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온들은 이 온들에 의존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13) svapudgalakṛtam duḥkham yaḍi duḥkham punar vinā/

svapudgalah sa katamo yena duḥkham svayam kṛtam // MK. 12, k.4 (PSP 230, 9-10)

“만약, 고가 스스로의 푸드갈라(인격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고 없이 스스로 고를 만든 그 스스로의 푸드갈라(인격주체)란 무엇인가?”

14) 계륜부의 정확한 명칭에 관해서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 연구소 이영진 박사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즉, 아발로키타브라타의 주석에 의하면, 푸드갈라론자 내부의 일곱 부파 중 일부는 ‘오온과 동일한 푸드갈라’를, 또 다른 일부는 ‘오온과 다른 푸드갈라’를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온과 같음과 다름이 말하여 질 수 없는(비즉 비리온) 푸드갈라’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와 상당히 다른 푸드갈라설이며 오히려 II.1에서 살펴본 『입중론』에서 보여준 ‘온 즉야’로서의 푸드갈라설과 동일하다. 그런데, 아발로키타브라타의 이 기술은 티베트 양대 종의서(*grub mtha'*) 문헌의 하나인 창카(*ICang skya Rol pa'i rdo rje*, 1717-1786)의 『종의설정』(宗義設定) *Grub pa'i mtha'i rnam par bshag pa*(CGN)의 바이바시카(*Vaibhāṣika*)章에서 푸드갈라론자의 부파 분열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아발로키타브라타 존사(尊師)도, “자파(불교도)의 분별설부(*Vibhajyavāda*, 分別說部), 법호부(法護部) 혹은 법장부(*Dharmaguptikā*, 法藏部), 홍의부(*Tāmrashāṭīya*, 紅衣部), 독자부(*Vatsīputrīya*, 犢子部), 화지부(*Mahīśāsaka*, 化地部), 법상부(*Dharmottarīya*, 法上部), 계륜부(*Kaukul[ī]aka*, 혹은 *kurukkula*, 鷄胤部)의 일곱 부파는 소위 푸드갈라의 실체(아트만)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¹⁶⁾

15) PPT(Dege, zha 270b6-271a3): 'dir rang gi sde pa dag las rnam par phyte ste smra ba pa'i sde dang | chos srung sde dang | gos dmar sde dang | gnas ma'i bu'i sde dang | sa ston gyi sde dang | chos mchog sde dang | sar sgrogs rigs kyi sde zhes bya ba sde pa bdun po de dag ni phal cher gang zag tu smra ba yin te | de dag las kha cig ni phung po dang | gang zag gcig par 'dod pas gang zag bdag gis byas pa'i phyir sdug bsngal bdag gis byas pa yin zhes zer | kha cig ni phung po dang gang zag tha dad par 'dod pas sdug bsngal gang yin pa de nyid gang zag ma yin pa'i phyir sdug bsngal gzhan gyis byas so zhes zer te | de'i phyir sde pa bdun po de dag na re de ltar gcig pa dang | tha dad pa'i rnam grangs las sdug bsngal bdag dang gzhan gyis byas par grub pa'i phyir | khyed dbu ma pas gnyi gas byas pa'i phyogs sun dbyung ba'i skyon snga ma dag kho bo cag gi phyogs la med do zhes zer ro || (밑줄 필자)

16) CGN (Ka 60b4-5) : spyan ras gzigs brtul zhugs gyis kyang | rang gi sde pa rnam par phyte ste smra ba dang | chos srung ba dang | gos dmar ba dang | gnas ma bu dang | sa ston pa dang |

즉, 티베트에서도 푸드갈라론자 내부 부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것이 실제 인도 불교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사실(史實)로서 상당히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¹⁷⁾ 따라서, 창카 자신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발로키타브라타의 설명이 제시하듯이,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관하여서는 비즉비리온 이외도 ‘오온과 다른 푸드갈

chos mchog pa dang | sa sgrogs ri pa dang bdun ni phal cher gang zag gi bdag tu smra ba yin no | zhes gsungs so ||

- 17) 아발로키타브라타의 기록을 다양한 푸드갈라설의 성립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즉, 특히 법장부등을 푸드갈라론자로 보고 있는 아발로키타브라타의 기록과 이를 신뢰하고 있는 창카의 인식은 현재 알려져 있는 부파 불교에 대한 일반적 분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아발로키타브라타의 시대에 ‘푸드갈라론자’라는 말이 독자부/정량부 계통을 넘어선 넓은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본다면, 독자부/정량부 계통은 비즉비리온의 푸드갈라설을 채택하였지만, 그 외의 ‘푸드갈라론자’로 분류되는 부파들은 ‘온족아’등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소위 대표적 푸드갈라론자인 독자부 계통은 오직 비즉비리온의 푸드갈라를 주장했을 수 있으므로 아발로키타브라타가 기술하는 ‘푸드갈라론자’(gang zag tu smra ba)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인도 불교 부파의 역사를 기술하는 문헌들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상반된 기록도 발견되듯이, 아발로키타브라타와 창카의 인식이 당시 인도 불교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후기 인도 불교에서 푸드갈라론자 의미의 확장적 전환’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많은 문헌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가설의 확립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 문제에 관한 연구 및 자료적 근거 제시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으로 확장시키기에는 필자로서는 주저함이 앞선다. 또한, 현대 학계에서 법장부, 분별설부등을 푸드갈라론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아발로키타브라타의 진술을 푸드갈라론자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최소한 독자부를 정확히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푸드갈라론자 내부 부파중에는 ‘온과 동일한 푸드갈라’와, ‘온과 다른 푸드갈라’를 주장한 부파가 ‘있었다’는 기록 자체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II.1에서 본 『입중론』 역시 ‘온과 동일한 푸드갈라’를 푸드갈라론자의 주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후술하겠지만, 『중론』 주석서들은 ‘온과 다른 푸드갈라’를 푸드갈라론자의 주장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발로키타브라타가 말하는 ‘푸드갈라론자’를 다른 의미로 해석함도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아직은 다른 근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환언하면, 남아있는 문헌 기록을 다른 근거 없이 ‘해석’만으로 의심하기보다 먼저 그 기록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편이 현 단계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라설'이나, II.1에서 본 '오온과 동일한 푸드갈라설'을 주장한 몇몇의 푸드갈라론자 내부의 지파가 실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뒷받침하기 또 다른 문헌 근거로서 『중론』 제9장 「근본주품(觀本住品)에 관한 『반야등론』과 *Prasannapadā*를 검토해 본다.

II.3 『반야등론』 제9장의 푸드갈라설

II.3.1 「선행하는 주체」로서의 푸드갈라

『중론』 제9장의 제목은, 『무외론』 『불호주』 *Buddhapālita-mūlamādhyamakavṛtti* (仏護注) 『반야등론』은 nye bar len pa po dang nye bar blang ba brtag pa (=upādātṛupādāna-parīkṣā : 취자(取者)와 취(取)에 관한 고찰)이고, *Prasannapadā*는 pūrva-parīkṣā(Tib. : snga rol na gnas pa brtag pa=pūrva-vyavasthita-parīkṣā :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에 관한 고찰), 그리고 『청목주』(青目注)는 「근본주품(觀本住品)으로 되어있다.¹⁸⁾

그렇다면, 이 ‘취자’ 혹은 ‘선행하여 확립되어 있는 것’(pūrva-vyavasthita)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야등론』은 제9장의 비판 대상을 ‘독자부’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들 보는 감관¹⁹⁾(=시각 기관) 등을 취하는 자는, 그(取者)에 속하는, 이들 보는 감관이나 감수(感受)등 보다도 먼저 존재한다, 라고 어떤 자는 말한다. ‘어떤 자’ 라고 하는 것은 자파(불교도)의 모두 그와 같이는 주장하지 않으므로, 독자부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와 같이 말했다고 보여준다...(중략)… 그들은 다음과 같이 또한 말한다. 왜냐하면, 취자가 있으므로 그들 취하여지는 것(upādeya-보는 감관 등)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取者)에 의존하여 취하여지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이다.²⁰⁾(말줄 필자)

18) Saito 1984, 264-265, n.1.

19) Ita ba la sogs pa를 ‘보는 감관’ 등으로 번역한 이유는 각주) 20 참조.

한편, 『중론』 제9장·제1계·제2계에 대한 *Prasannapadā*의 주석도 이 ‘선행하는 주체’, 즉 취자(upādātr)를 다음과 같이 정량부설로 주석하고 있다.

어떤 자, 즉 취자에 있어서 보는 감관·듣는 감관·향기 맡는 감관·맛 보는 감관등, 그리고 감수 작용·감촉 작용·작의(作意,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등이 존재하는 그 자는, 그들 모든 취하는 기관(upādāna)보다 앞에 존재한다고 정량부의 사람들은 말한다.

왜인가?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는 감관 등이 존재하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이들 [보는 감관등]보다 이전에, 그 확립되어 있는 것은 존재한다(MK 9.2)

...이와 같이, 먼저, 만약 푸드갈라가 보는 감관 등등 보다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푸드갈라)은 보는 감관 등에 속하는 취(upādāna)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²¹⁾

20) PP(Derge, Tsha 124a5-7): de'i phyir lta ba la sogs pa de dag nye bar len pa po gang gi yin pa'i lta ba la sogs pa dang | tshor ba la sogs pa de dag gi snga rol na nye bar len pa po de yod do zhes kha cig smra ste | kha cig ces bya ba ni rang gi sde pa thams cad kyis de ltar khas ma blangs pa'i phyir gnas ma'i bu'i sde pa dag ste | de dag de skad ces zer ro zhes bya bar ston to ||...de dag 'di skad ces kyang zer te' di ltar nye bar len pa po gnas na nye bar blang ba de dag shes par byar rung ste|de la ltos nas de dag byung ba'i phyir ro ||

21) yasyopādātūr *darśanaśravaṇaḥrāṇarasanādīni vedanāsparśamanaskārādīni ca bhavanti sa upādātā pūrvam ebhya upādānebhyo 'stīti sāmitīyā vadanti// kim kāraṇam / yasmāt /

katham hy avidyamānasya darśanādi bhaviṣyati /

bhāvasya tasmāt prāḡ ebhyaḥ so 'sti bhāvo vyavasthitaḥ // MK9, k.2

...(중략)... evaṃ yadi tāvat pudgalo darśanādibhyaḥ pūrvam vyavasthito na syāt / nāsau darśanādikasyopādānam akariṣyat / PSP 192, 7-193, 1.(밑줄 필자)

여기서 *darśanaśravaṇaḥrāṇarasanādīni... (Tib.:lta dang nyen la sogs pa dang...)을 ‘보는 감

여기에서, 찬드라키르티도 논적을 푸드갈라론자(정량부)로 상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 9장의 논적을 푸드갈라론자로 상정한 해석은 『중론』 주석서들 중에서도 『청목주』 『무외론』 『불호주』에는 보이지 않고 『반야등론』과 *Prasannapadā*에만 보인다. 또한 바비베카는 『중관심론』(中觀心論)*Madhyamaka-hṛdaya-kārikā* 제3장90계-제93계 및 *Tarkajvālā*에서도 다음과 같이 ‘독자부’의 푸드갈라설을 소개하고 있다.

독자부는 온(蘊)·처(處)·계(界)와는 별개의 푸드갈라가 윤회하고 해탈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나(바비베카)는] 말한다.²²⁾

또한 그 푸드갈라는 [오온과] 같음·다름이 말하여 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체(*rdzas*, **dravya*)로서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²³⁾

직접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반야등론』 제9장의 ‘모

관·듣는 감관...’으로 번역한 이유는 Saito 1984, 265, n.3 참조. 즉, MK Ch.9(및 『불호주』, *Prasannapadā*)은 취(取-취자에 있어서 질료인(質料因)으로서의 六根) 이전에 취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취자는 어떠한 질료인에 의(依)해 나타나 지는가, 라는 논점을 문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darśana*의 *-ana* 접미사는 행위(보는 것)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보는 수단’, 즉 질료인(*upādāna*)으로서의 시각 기관(眼根)의 의미이다. 이것은 『중론』 제9장 제10계 그 주석에서 ‘모든 원소([*mahā*]bhūta)로부터 생긴 *darśana*’(PSP 197, 12)라는 기술로 부터도 *darśana* 등이 물질적인 시각 기관을 의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本多역 1988, 183-191의 ‘見る道具’, 奥佳역 1988, 326-339. ‘見るもの(能見, 眼根)’의 이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22) *Tarkajvālā*(Derge, dza 78b6-7) : gnas ma bu'i sde pa dag ni phung po dang skye mched dang khams rnams las gzhan pa'i gang zag 'khor ba dang thar par 'dod pas de dgag pa'i phyir bshad pa |

23) *Tarkajvālā*(Derge, dza 79a4-5) : ci ste gang zag de gcig pa nyid dang tha dad pa nyid bu brjod par bya ba nyid kyang ma yin la | rdzas su yang yod par 'dod do zhe na | de lta yang mi rigs te |

든 감관들 보다 선행하는 주체'로서의 푸드갈라는 비즉비리온이라기 보다는 오온과 별개의 존재로 해석해야 함은 명백하다. 또한, 『반야등론』과 동일 저자에게 귀속되는 지금 살펴본 *Tarkajvālā* 제3장의 푸드갈라설에서는 온·처·계와는 '다른' 푸드갈라와, 같음·다름이 '말하여 질 수 없는' 푸드갈라라는, 상이한 푸드갈라설이 보인다. 이것은 동일 독자부 내부에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나 푸드갈라에 대한 다른 개념 체계를 가진 논사들이 공존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 관하여 전술하였듯이 찬드라키르티는 *Prasannapadā*에서 '모든 감관들 보다 선행하는 주체'를 정량부의 푸드갈라설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반야등론』 제9장처럼 '오온과 다른' 푸드갈라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드라키르티는 『입중론』에서는 '온즉야', '심즉야', '비즉비리온' 모두를 정량부설로 상정하고 있다.

이다는 Conze 1962, 124-125를 인용하며, *Bhārasutta*(SN.III,25-27)와의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독자부는 오온과 다른 푸드갈라를 주장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비즉비리온의 푸드갈라도 주장했음을 소개하고 있다²⁴⁾. 또한 미토모는, 『중론』 제9장의 '보는 감관보다 선행하는 존재'에 관하여 『구사론』 「파아품」에는 '모든 인식보다 선행하여 존재하는 푸드갈라'라는 언급은 없지만, 『식신족록』의 '현재도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존재하는'(現有·等有)이라고 하는 주장에 해당하고, 또한 『성실론』에서 푸드갈라는 불생(不生)이라고 기술된 것과 일치하므로 『중론』의 해당 부분에서 언급된 푸드갈라설은 푸드갈라론자의 주장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²⁵⁾

II.3.2 추론식(anumāna)과 아가마(āgama)에 기반한 푸드갈라론자의 주장

여기서는 『반야등론』 제9장에서 소개된 추론과 아가마를 중시한 독자부의

24) Iida 1980, 241, n.75-76.

25) 三友 1978b, 139.

주장을 검토함으로써, 『반야등론』이 소개하는 ‘선행하는 주체로서의 푸드갈라’, 즉 ‘오온과 다른 푸드갈라’에 대한 교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흔적을 확인해 보려한다.

먼저 『중론』 제9장제2계에 대한 『반야등론』의 주석은 푸드갈라의 존재를 주장하는 독자부설이 추론식으로 소개되어있다.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에 어떻게 보는 감관 등이 존재하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이들 [보는 감관등]보다 이전에 확립되어진 그 존재는 있다.(MK 9, 2)

라고 하는 것은 [푸드갈라론자들에 의한] 결론(*nigamana)의 말이다. 그러므로 앞에서와 같이 이유와 유례(dr̥ṣṭānta, 喩例)를 밝힌 추론(anumāna)은,

<주장 명제> 그 취자(取者)는 보는 것(보는 감관) 등등 보다 이전에 확립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이유> 왜냐하면, 취자이기 때문에.

<유례> 이 [세간]에 있어서, 취자라고 하는 것은, 취(보는 감관등) 이전에 그야말로 확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잡초로 엮은 담장을 만드는 사람은 잡초들의 이전에 확립한 것으로서 존재하듯이.

그리고 또한,

<주장 명제> 보는 감관이나 듣는 감관 등의 취(upādāna)들은,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취자(取者)를 수반한다고 알아야 한다.

<이유>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례> 예를 들어, 잡초 등이 잡초로 엮은 담장을 만드는 사람을 수 반하는 것과 같이.²⁶⁾

즉, 바비베카에 의해 소개된 독자부의 주장은 추론식으로 구성되어 취자(取者-푸드갈라)가 취(보는 감관 등)에 선행해서 존재하고, 그것은 흡사 잡초를 엮어서 담장을 만드는 사람과 잡초와의 관계와 같다고 한다.

한편, 흥미롭게도 독자부의 일부는 아가마를 중시하는 입장에 서서, 아가마를 추론으로 논박할 수 없음을 Bhartṛhari(5C경)의 *Vākyapadīya*를 인용하여 보이고 있는데 이때 ‘선행하는 주체’(푸드갈라)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독자부중 어떤 이는 반론한다. 아가마에 의하면, 앞서서 확립하고 있는(=선행하는 주체인) 신(神)으로 된 취자(取者)가, 신이 되는 행위(업)를 다 하는 것에 의해 사람들의 온을 취하는 취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추론에 의해 취자(取者)는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들(독자부)은 인정하지 않는다.

26) 이하는 각주22)에 이어서 독자부가 ‘선행하는 주체’를 주장하는 부분임.

katham hy avidyamānasya darśanādi bhaviṣyati /

bhāvasya tasmāt prāg ebhyaḥ so 'sti bhāvo vyavatshitaḥ // MK.9, k.2(PSP 192, 9-10)

PP(Derge, Tsha 124a7- 124b3) : zhes bya ba ni mjug bsdu ba'i tshig yin no || de lta bas na snga ma bzhin du gtan tshigs dang dpe mngon par rjes su dpag pa ni nye bar len pa po de lta ba po la sogs pa'i snga rol na gnas pa yod de | nye bar len pa po yin pa'i phyir ro || 'di na gang nye bar len pa po yin pa de ni nye bar blang pa dag gi snga rol na gnas pa kho na yin te | dper na sab ma mkhan rtsi rkyang la sogs pa dag gi snga rol na gnas pa yod pa bzhin no || yang na lta ba dang nyan pa la sogs pa nye bar blang ba dag ni nye bar len pa po snga na gnas pa dang ldan par shes par bya ste | nye bar blang ba yin pa'i phyir dper na rtsi rkyang la sogs pa bzhin no ||

맹인(盲人)이 발로 추측해서 험난한 길을 달리듯이

추론을 중요시 하는 자는 [험난한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다(*Vākyapadīya* 1, 42)²⁷⁾.

이상에서, 추론식을 이용하여 ‘선행하는 주체’(푸드갈라)를 인정하는 푸드갈라론자들의 주장과, 한편으로는 추론식 보다 아가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27) PP(Derge, Tsha 125a3-5) : yang na gnas ma'i bu'i sde pa dag las kha cig phyir zlog par byed de | lung las nye bar len pa po *ltar gyur pa snga na gnas pa yod pa *ltar 'gyur ba'i las yongs su zad pas'mi la sogs pa'i phung po nye bar blang ba'i nye bar len pa po nyid du 'gyur bar grags pas rjes su dpag pas nye bar len pa po med pa nyid du bstan pa kho bo cag mi 'dod de |

long ba rkang pa tshod dpags kyis ||
nyam nga'i lam du rgyug pa ltar ||
rjes su dpag pa gtsor 'dzin pa ||
mnam par ltung ba mi dka'o ||

Cf. hastasparśādibādhena viṣame'pi abhidhāvatā /

anumānapradhānena vinipāto na durlabha // *Vākyapadīya* 1, 42. Cf. 中村 1956, 159-162.

티베트역 『반야등론』에서 인용된 *Vākyapadīya*는, 추론식에 의지하는 것을 맹인이 발(rkang pa)로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산스크리트어는 맹인이 손의 감각(촉각)등(hastasparśādi)에 의존해서 거친 길을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ltar=DP(Peking, Tsha 157a7)이지만, 이 독자부설을 비판하는 개소를 보면, 다음과 같이 lha(神)라고 되어있다.

*lha yang *lha'i nye bar blang ba dag nyid la brten nas *lha nyid du gdags par bya ba yin pa'i phyir...(Derge, Tsha 125a5, Peking, Tsha 153b2)

“신(神) 역시 신에 있어서 취하여지는 것에 의존해서 신으로서 가설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인용한 『반야등론복주』를 보면,

PP†(Derge, zha 195a2-3 : lung las nye bar len pa po *lhar gyur pas nga na gnas pa yod pa *lhar 'gyur pa'i las yongs su zad pas mi la sogs pa'i phung po nye bar blang ba'i nye bar len pa po nyid du 'gyur bar grags pas rjes su dpag pas nye bar len pa po med pa nyid du bstan pa kho bo cag mi 'dod de zhes zer te |(Italic: PP부터의 인용)

즉, *lha(神)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야등론』의 *ltar는 *lha의 오기(誤記)라고 생각된다.

‘선행하는 주체’(푸드갈라)를 인정하는 독자부의 주장이 있음을 보았다. 물론, 푸드갈라론자들이 추론식을 구성하여 주장을 펼쳤는지, 논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비베카가 푸드갈라론자의 주장을 추론식으로 구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여도, ‘선행하는 주체’(푸드갈라), 즉 오온과 다른 푸드갈라를 주장한 푸드갈라론자들의 교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비베카가 이 모든 내용들을 왜곡 혹은 오해하여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까? 즉, 바비베카는 당시 존재하던 푸드갈라설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II.3.3 다양한 푸드갈라설의 양립 불가능성에 관하여

이상 중기 중관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푸드갈라설은, 흔히 알려진 비즉 비리온으로서의 푸드갈라 이외에도 ‘온과 동일한 푸드갈라’ 및 ‘심과 동일한 푸드갈라’, 그리고 ‘온과 다른 푸드갈라’라고 하는, 사실상 온과의 관계 설정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모두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 부파의 교리가 인격주체(푸드갈라)의 개념을 놓고 이렇게 양립시키기 힘든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푸드갈라설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관해서는 오온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푸드갈라가 가설적 존재(prajñapti)인지 실재적 존재(dravya)인지에 관해서도 통일된 기록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의 변천에 관하여 에 의하면, 푸드갈라설에 대한 초기 자료인 『식신족론』은, ‘제의승의(諦義勝義)에 의해 증명 되는 푸드갈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제의승의’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붓다고사(Buddhaghosa, 5C경)의 『논사주』(論事注)는 제의(諦義: saccikatṭha)의 의미에 관하여 환영과 같이 무실체한 것이 아니고 실재하는 것이라고 하고, 승의(勝義: paramatṭha)에 관해서는 전설상의 존재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입장의 존재라고 주석했다.²⁸⁾ 또한 「파아품」에서 푸드갈라는

실유(實有) 가유(假有)도 아니고, ‘온에 의존하여(upādāya) 시설(施設)된다’라고 하지만 『성실론』(成實論) 『삼미저부론』에서는 가유라고 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²⁹⁾

이와 같은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의 변화에 관해 윌리엄&트라이브는, ‘푸드갈라설에 대한 타 부파의 비판이 계속됨으로 인해 푸드갈라론자의 주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추측한다.³⁰⁾ 한편 나이토는,

28) 三友 1978a, 126-127. Cf. Priestley 1999, 83-87.

29) 三友 1978b, 140-141의 분류에 따라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대해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식신족론』 『논사』- ‘실유’(實有)로서의 푸드갈라

『식신족론』(T.26, 542a12-14) : 補特伽羅論者作如是言. 諦義勝義. 補特伽羅. 可得可證.

“보특가라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의승의(諦義勝義)로서 보특가라는 인식되고 증명된다.” 『논사』(Kathāvatthu.I,1.1) : puggalo upalabbhati saccikaṭṭhāparamatṭhenāti? āmantā . “[상좌부논사] 푸드갈라는 제의 승의로서 인식되어지는가. [푸드갈라논자] 그렇다.”

제2기: 『구사론』 『파아품』-가설로서의 푸드갈라

『구사론』 『파아품』(AKBh 9 [LEE^{ed}] 38, 1-3): yat tarhi vātsīputrīyāh pudgalaṃ santam icchanti/ vicāryaṃ tāvad etat/ kim te dravayata icchanty āhosvit prajñaptitah/ kim cedam dravayata iti kim vā prajñaptitah/

“그리고, 독자부 논자들은 푸드갈라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점이 고찰되어야 한다. 그들은 [푸드갈라를] 실재로서 주장하는가, 아니면 가설로서 [주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푸드갈라)가 실재로서 [존재하는]가, 또한 어떻게 해서 가설로서 [존재하는]가.”

(AKBh 9[LEE^{ed}]40, 1-3) : naiva hi sa dravyato ’sti nāpi prajñaptitah/ kim tarhi/ ādhyātmikān upāttān vartamānān skandhān upādāya pudgalaḥ prajñapyate//

“[푸드갈라논자] 그 [푸드갈라]는, 실은 실재로서 존재하지 않고, 가설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Vasubandhu] 그럼 무엇인가.

[푸드갈라론자] 내적이고, 집수된 현재의 제온에 의존해서 푸드갈라는 가설된다.”

武田 1998,11는 ‘실재로서 존재하지 않고, 가설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푸드갈라론자의 대답 뒤에, ‘내적이고, 집수(執受)된 현재의 제온에 기반하여 푸드갈라는 가설된다’라고 하는 모순된 내용이 설명되므로 이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3기: 『이부중론』 『삼미저부론』-가명(假名)으로서의 푸드갈라

『삼미저부론』(T.32, 464b6-7): 如佛為外道說. 雖有我是假名, 我不實, 說我依有漏陰.

30) Williams and Tribe 2000, 126.

「파이폼」의 비판을 받은 후 성립한 『삼미저부론』은 푸드갈라를 ‘가설’로서 설정했지만, 『삼미저부론』보다 후대의 TS·TSP는 독자부가 푸드갈라를 ‘실재’(dravya)라고 인정한 점에 관하여 비판을 행한다. 이것은 TS·TSP가 「파이폼」 이후 전개된 푸드갈라설을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했다³¹⁾. 즉, 푸드갈라 비판에 관하여 TS·TSP는 각주5)에서 보았듯 「파이폼」으로 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TSP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는 ‘실재’이고, 이것은 「파이폼」이 소개한 ‘가설’로서의 푸드갈라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나이토의 추정에 관하여, 현 단계에서 「파이폼」과 『삼미저부론』의 선 후 및 영향 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³²⁾

또한, 각주29)에서 보았듯이, 비판적 문헌들을 통해 구성한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는 ‘실재(승의적 존재) → 가설과 실재물 양자의 부정 → 가설’의 순서가 되겠으나, 「파이폼」과 『삼미저부론』보다 뒤에 나온, 본 연구에서 검토했던 중관 문헌들에서의 푸드갈라는 모두 ‘실재’로 규정되어 비판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재(승의적 존재) → 가설과 실재물 양자의 부정 → 가설’이라는 기존 연구에 다시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는 ‘실재’로 회귀했다고 봐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6C이후에도 푸드갈라설 비판을 이어온 중관 문헌들이 규정한 ‘실재’로서의 푸드갈라를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비판적 문헌들이 전해주는 다양한 푸드갈라설을 꼭 ‘의도적 왜곡’이나,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만 재구성 할 근거는 부족해

31) 内藤 1985, 46, n.42.

32) 『삼미저부론』의 편찬 시기는 5C초 이전이고, 번역 시기는 陰(skandha, T.32, 462b4), 痛(vedanā, T.32, 463a2), 盛陰(upādānaskandha, T.32, 464b4)등의 번역어로부터 현장(602-664)이전 일 것으로 추정된다(Chau 1997, 100).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술한 아발로키타브라타의 주석이 보여주듯이 푸드갈라론자 내부에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순되는 존재 양태를 가진 여러 푸드갈라설에 관한 이론이 ‘변화’해 가면서도 동시대에 ‘공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TS·TSP의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인 ‘실재로서의 푸드갈라’는 ‘무지’나 ‘의도적 왜곡’보다는 동시대에 공존했던 다양한 푸드갈라설 중 하나를 채택해서 비판했다고 보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다양한 푸드갈라설의 양립 가능성에 관해 마지막으로 ‘과보식’(果報識)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싶다. 『섭대승론식』은, 대중부는 모든 식의 근본으로서 ‘근본식’(根本識)을, 화지부는 색(色)도 심(心)도 아니므로 무색계정·무상천등에 들어가도 단절되지 않는 궁생사온(窮生死蘊)을 주장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은 오온과 별개라고도, 동일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독자부의 비즉비리온의 푸드갈라와 유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상좌부는 유분식(有分識)을, 경량부는 종자나 미세 의식(一味蘊)을, 정량부는 과보식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³³⁾ 그러나 『섭대승론식』은 이 과보식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³⁴⁾ 근본식, 궁생사온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과보식, 근본식, 궁생사온, 유분식등은 차이가 그리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³⁵⁾ 그렇다면, 과보식은 비즉비리온으로서의 궁생사온과 같은 존재 양태를 갖게 되고, 그 역할에도 유사점이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해 미토모는, 윤회와 인식 주체로서의 푸드갈라를 주장한 푸드갈라론자가 왜 존재 양태와 그 역할이 중첩되는 과보식을 별도로 세웠을까에 관해 의문을 나타냈다.³⁶⁾ 즉, 푸드갈라설은 오온과의 관계로 부터 그 존재 양태를 정의한 ‘비즉비리온·온즉아·심즉아·온과 다른 푸드

33) 三友 1978b, 138-139(Cf.本多 2010, 53-54, 池田 1991, 923)

34) 『섭대승론식』(T.31, 160c9-10) : 正量部立名 果報識. 上座部立名 有分識.

35) 本多 2010, 117.

36) 三友 1978b, 139.

갈라' 사이의 충돌뿐만 아니라, '가설·실재'의 양립 가능성이나, 윤회의 주체와 관계하는 과보식과 푸드갈라의 중첩된 역할 자체에서도 이미 이해하기 힘든 교리를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III. 결론

이상 본문에서 살펴본 중후기 중관학파의 문헌들이 전하는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즉비리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푸드갈라 설이 언급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존재 양태는 매우 간략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푸드갈라설에 비판적인 논자들의 의도적 왜곡 혹은 오해라고 보는 추정이나, 여러 푸드갈라설이 존재했다고 하는 소수 연구자들의 짧은 언급만이 있을 뿐,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반야등론복주』 제 12장의 기록은 푸드갈라론자 내부에서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관한 다양한 교리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반야등론』 및 *Prasannapadā* 제9장은 '선행하는 주체', 즉 '오온과 다른 존재'를 독자부(혹은 정량부)의 푸드갈라로 주석한다. 특히 『반야등론』은 매우 구체적인 독자부와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반야등론』과 동일 저자에 귀속되는 『중관심론』은 비즉비리온의 푸드갈라와 오온과 다른 푸드갈라를 기술하고 있고, *Prasannapadā*와 동일 저자의 저서인 『입중론』 역시 동일 장(章) 내에서 비즉비리온 뿐만 아니라 온즉야, 심즉야 모두를 정량부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모두 비판자들의 단순한 '오해'나 '왜곡'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반야등론복주』 등의 기록을 신뢰하여, 오히려 다양한 푸드갈라설을 가진 당대 푸드갈라론자 내부의 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동일 부파내의 양립 불가능한 견해의 존재’라는 문제를 야기하지만, 시대별로 푸드갈라설을 전하는 문헌들은, 푸드갈라가 실제인지 가설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양립 불가능한 이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푸드갈라의 존재 목적이 윤회의 주체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음에도 정량부는 그러한 푸드갈라와 그 존재 의의가 중첩될 수 있는 과보식도 주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오온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비즉비리온등의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뿐만 아니라 실제 혹은 가설로서의 푸드갈라, 그리고 과보식과 푸드갈라의 관계 등에서도 해결하기 힘든 ‘모순된’ 교리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즉비리온 이외의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를 양립 불가능성의 이유만으로 배제하여 비판자의 오해나 왜곡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푸드갈라의 존재 양태에 대한 교리들 사이의 모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푸드갈라론자 부파 내부에 견해를 달리했던 논사들이 공존했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약호 및 참고문헌

- AKBh 9[LEEed] *Abhidharmakośabhāṣya of Vasubandhu*, chapter IX :
 Ātmavādapratisedha, with critical notes by the late Prof.
 Yasunori Ejima (江島惠教), ed. by Jong Cheol LEE (李
 鍾徹). 2005. *Bibliotheca Indologica et Buddhologica* 11,
 Tokyo: Sankibo Press.
- AN *Aṅguttara Nikāya* (Pāli Text Series)
- CGN Grub pa'i mtha'i rnam par bshag pa(ICang skya Rol pa'i
 rdo rje) 『東京大学所蔵チベット文献目録(東大目録)』 Nos.
 86-85 (cf. Nos.82-85). Ka 54a1-72a5.
- MA(Bh)(D) *Madhyamakāvatāra-bhāṣya*, sDe dge edition, No.3862,
 'a 220b1-348a7.
- PP(D) *Prajñāpradīpa*, sDe dge edition, No.3853, Tsha 45b4-
 259b3.
- PP(P) *Prajñāpradīpa*, Peking edition, No.5253, Tsha 53b3-326a6.
- PPṬ(D) *Prajñāpradīpa-ṅikā*, sDe dge edition, No.3859, zha 1b1-
 338a7.
- PSP *Mūlamadhyamakakārikās de Nāgārjuna avec la Prasannapadā
 Commentaire de Candrakīrti*, publiée par Louis de La Vallée
 Poussin. 1903-13. *Bibliotheca Buddhica* IV. St.Petersbourg.
- SN *Samyutta Nikāya* (Pāli Text Series)
- Tarkajvālā *Madhyamaka-hṛdaya-vṛtti-tarkajvālā*, sDe dge edition,
 No.3856, dza 40b7-329b4.
- TSPB *Tattvasamgraha of ācārya Shāntarakṣita with the*

Commentary 'Pañjikā' of Shrī Kamalaśīla. 2 vols. Bauddha Bharati Series 1, ed. by S. Dwarikadas Shastri. 1968. Varanasi.

Conze, Edward 1962. *Buddist Thought in India : Three Phases of Buddhist Philosophy*, London ; Boston : Allen&Unwin, repr. Mrs M Conze, 1983.

Duerlinger, James 2008. "Candrakīrti on the theories of persons of the sāmmitīyas and āryasāmmitīyas" *Philosophy East & West* Vol.58, no.4, University of Hawai'i Press, 446-469.

Gethin, Rupert 1998. *The foundations of Buddhism*,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ida, Shotaro 1980. *Reason and Emptiness*. Tokyo: Hokuseido.

Lamotte, Étienne 1988. *History of Indian Buddhism: From the Origins to the Śāka Era*,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Sara Boin-Webb, Louvain and Paris: Peters Press.

Li, Xue zhu 2015. "Madhyamakāvatāra-kārikā Chapter 6",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43-1, Springer.

Priestley, Leonard C. D. C. 1999. *Pudgalavāda Buddhism. The Reality of the Indeterminate Self*, South Asian Studies Papers, no. 12. Monograph no.1, University of Toronto, Centre for South Asian Studies.

Saito, Akira 1984. *A study of The Buddhapālita-mūlamadhyamaka-vṛtti*,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Thích Thiện Châu 1977. *Les Sectes personalistes (Pudgalavādin) du*

bouddhisme ancien. Thèse pour le Docterat d' État ès-Lettres et Sciences humaines, Université de la Sorbonne Nouvelle (Paris III). English translation by Sara Boin-Webb. Ho Chi Min City: Vietnam Buddhist Research Institute.

Williams, Paul and Tribe, Anthony 2000. *Buddhist Thought: A Complete introduction to the Indian Tra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池田 練太郎 1991. 「中有の機能について」, 『印度学仏教学研究』 39(2): 922-926.

奥住 毅 1988. 『中論註釈書の研究(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 『プラサンナパダー』 和訳)』 東京:大蔵出版.

桂 紹隆 2011. 「インド仏教思想史における大乘仏教—無と有との対論」, 『大乘仏教とは何か』(「シリーズ大乘仏教」 第1巻):254-288, 東京:春秋社.

高井 観海 1978. 『小乗仏教概論』, 東京:山喜房書林.

武田 宏道 1998. 「犢子部のプロダガラ説 — 『俱舍論』 破我品の所説を中心にして—」, 『龍谷大學論集』 451:1-36.

鄭 祥教

2013 「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のプロダガラ (人格主体) 論批判—「七通りの仕方による考察」を中心として—」, 『インド哲学仏教学研究』 20: 65-76.

2015 「*Tattvasaṃgraha*および*Tattvasaṃgrahapañjikā*第7章1第6節 「犢子部が構想するアートマン (プロダガラ) の考察」のテキスト考」, 『インド哲学仏教学研究』 23: 73-84.

中村 元

1956 『ことばの形而上學』, 東京:岩波書店.

1981 「インド思想一般から見た無我思想」, 『自我と無我』 3-142, 京都: 平楽寺書店.

内藤 昭文

1984 「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説批判(II)-ブドガラ説をめぐって-(1)」, 『印度学仏教学研究』33(1):140-141.

1985 「TSPにおけるアートマン説批判(II)-ブドガラ説をめぐって-(2)」, 『佛教學研究』41: 20-51.

長澤 實導 1939. 『ダットヴァサンクラハ』に於ける補特伽羅説の批判, 『仏教研究』3(3):69-81. (長澤實導 1978. 『瑜伽行思想と密教の研究』大東出版社. 191-205 再録).

並川 孝義 2011. 『インド仏教教団正量部の研究』, 東京:大蔵出版.

本多 至成 2010. 『正量部の業思想』, 京都:永田文昌堂.

本多 恵 1988. 『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中論註和訳』, 東京:国書刊行会.

三友 健容

1978a 「我」を主張した部派(一)(『三論集』第三輯), 125-134.

1978b 「我」を主張した部派(二)(『三論集』第三輯), 135-142.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various definitions of
Pudgala
—Based on postmid-Mādhyamika texts**

SangKyo Jeong

University of Tokyo (Ph.D. Course in the Dept. of Indian Philosophy and Buddhist Studies)

The doctrine of ‘not-self’ (*anātman*)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entral Buddhist philosophies. This concept of *anātman*, however, raised the following complex problem: in Buddhism, who can be the doer of good and bad kinds of deeds, and who can be the enjoyer of the results? Vātsīputrīya and Sāṃmitīya, which were representative branches of Pudgalavādin in Indian Buddhism, asserted that ‘inexpressible Pudgala’ cannot be explained in the same manner as the aggregates, nor does it exist apart from the aggregates. The Pudgalavādin seemed to tr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octrine of ‘not-self’. This ‘inexpressible Pudgala’, therefore, became generally known as the Pudgalavādin’s distinctive theory of personal agency.

However, according to *Madhyamakāvatāra* chp. 6, we see evidence that

Sāṃmitīya demonstrated the viewpoint that aggregates are the Pudgala or that consciousness is the Pudgala. On the other hand, *Prajñāpradīpa* and *Prasannapadā* both regard ‘Preceding existence’ (differentiating existence from aggregates) found in *Mūlamadhyamakakārikā* chap. 9, to be the very Pudgala of Pudgalavādin.

Moreover, *Prajñāpradīpa-ṭīkā* chap. 12., documents the existence of a few schools in Pudgalavādin, some of which insisted that Pudgala was the same as the aggregates, while others insisted that Pudgala was different from the aggregates.

Despite the revelations contained in these few records, ‘inexpressible Pudgala’- being neither the same as the aggregates, nor existing apart from the aggregates-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only unique doctrine of Pudgala. A minority of scholars (or people), however, believe that these kinds of records simply reveal a misunderstanding or distortion of the truth by opponents who criticised the Pudgalavādin.

In that respect, this thesis focused on the possibility that various kinds of Pudgala theory, with relevance to aggregates, exist. The focus of the research was on postmid-Mādhyamika texts.

Key word : *Pudgala, inexpressible Pudgala, Prajñāpradīpa, Prajñāpradīpa-ṭīkā, Madhyamakāvātāra*

2016년 4월 14일 투고
2016년 5월 15일 심사완료
2016년 5월 19일 게재확정